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평양 장대현교회의 부흥, LA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것!”

미주 장대현 은혜선교회 창립 기념 감사예배 드려

미주 장대현 은혜선교회(대표 김바울 목사 3400 W Olympic Blvd #208 LA CA90019)는 지난 12일, 창립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회복할 것을 다짐했다.

미주 장대현 은혜선교회는 선교방송센터의 성격을 가지고 탈북자 출신인 주은혜 선교사, 최한나 선교사가 일주일에 두 차례 목회자와 탈북자들을 초청해 ‘복음 통일’을 주제로 북한 복음화와 한반도 통일을 모색하게 된다.

미주 장대현 은혜선교회의 GJ 복음방송(Grace from Jangdae-hyun)은 유튜브에서 장대현은혜TV(클릭)를 검색해 시청이 가능하다.

GJ복음방송은 특히 미주 지역 탈북자들의 탈북스토리나 하나



미주 장대현 은혜선교회 창립 기념 감사예배에서 복음 통일을 힘차게 외치는 참석자들 ©기독일보

님을 만난 간증, 미국에 정착하게 하신 은혜와 복음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들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김바울牧사는 “탈북자들은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앞당기고, 북한 복음화의 일꾼으로 세

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자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북한의 복음화가 하루속히 이뤄져,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주의 거룩한 성소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주은혜 선교사는 “평양 부흥운동의 거룩한 장소였던 장대현교회 터 위에 김일성은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세워 자기를 찬양하도록 했다”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주체사상의 노예가 되어, 북한 땅에서 죽어가는 주민들을 위

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는 김바울 목사의 사회로 노정해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가 기도한 후 채동선 전도사(마가교회)가 시편1:1-3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채동선 전도사는 평양신학교 2회 졸업생인 채정민 목사의 손자로, 채정민 목사는 장대현교회 부흥운동 당시 함께 했었다.

채동선 전도사는 “장대현교회의 부흥운동은 통회와 참회로 시작했다.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회개의 시발점”이라며 “나의 어두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 회개로 시작된 장대현의 놀라운 은혜가 엘에이부터 온 땅까지 넘쳐흐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바다윗 목사(생명의전화)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문의 949-998-1222

갈릴리선교교회, LA 다운타운 북쪽에 2만 sqft 새성전 구입

갈릴리선교교회(담임 한천영 목사)가 새 성전 구입과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갈릴리선교교회가 새로 이전하는 교회 건물은 다운타운 북쪽에 위치한 미국 교회로 약 2만 스퀘어피트(560평) 규모로 넓은 주차장도 갖추고 있다. 또한 교회 주변에 주차 공간도 넉넉해, 많은 성도들이 편리하게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갈릴리선교교회는 그동안 소그룹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던 교회이다. 하지만 협소한 주차장 문제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년간 새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해 오던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한천영 목사는 “현재 사용하는 건물이 7천 스퀘어피트 남짓한 건물이라 공간 사용에 부족함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건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교



갈릴리선교교회 한천영 목사

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회를 이전하게 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펜데믹 이후, 새로운 부흥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갈릴리선교교회는 4월 중순에 입당할 예정이며 위치는 LA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로 파사데나, 글렌데일, 라크라센타 등지와도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함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고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럽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효사랑 선교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개최

유치원부터 12학년 대상, 응모 마감 5월 18일(수)까지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가 제9회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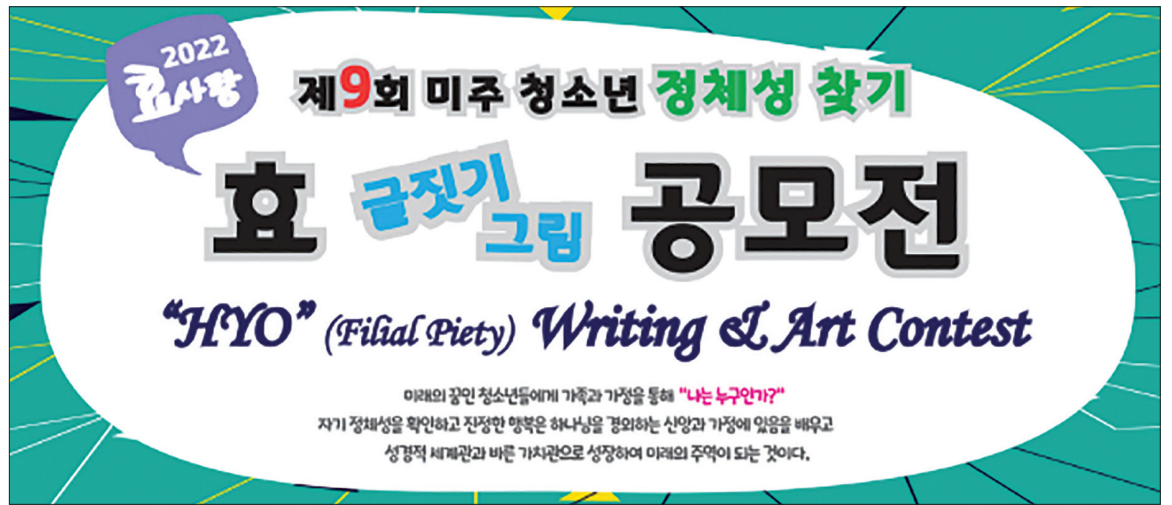
공모전 주제는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면”으로, 글 또는 그림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12학년 까지도.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지며, 대상 2명(각 부분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등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된다. 수상자들은 한인 정치인으로부터 상장을 받을 수 있다. 미주 전 지역에서 참가할 수 있으며, 타주 청소년의 작

품이 선정될 경우 상장과 상금은 집으로 배송된다.

접수 기간은 4월 18일(월)부터 5월 18일(수)까지며, 공모작 출품은 효사랑 선교회(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로 보내면 된다.

김영찬 목사는 “올해도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한다”며 “공모전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효사랑 선교회는 미주 한인 청소년들에게 확실한 자기 정체성과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글짓

기와 그림을 공모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펜데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해 86명의

수상자 전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기독교 정치인의 격려와 축하를 받기도 했다.

김동욱 기자 문의 714-670-8004

월드쉐어 USA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및 기독교인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임시로 마련된 장소에서 식수와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받고 있다. ©월드쉐어 USA



우크라이나 키르치(Vasily Khimich) 소령 ©월드쉐어 USA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참전중인 우크라이나 군종 목사 및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키르

치(Vasily Khimich) 소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은 강태광 목사는 기도 끝에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결정하고, 미주 지역 한인 교회와 성도, 기관 단체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키르치 소령은 우크라이나가 탈 러시아화를 추진할 당시, 우크라이나 군종 목사 제도 도입을 시도한 인물이다. 강태광 목사와는 강 목사가 한국군을 대표하는 군종 목사 자문관이었을 당시 국제 기독교인회(AMCF: Association of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연합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키르치 소령은 키에프에서 현재 군종 목사를 후원하고, 군인 아내로 과부가 된 자매들을 섬기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강태광 목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향한 미주 한인 교회와 단체,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동욱 기자 후원문의 323)578-7933

“유튜브, PPT, 페이스 북, 카메라... 꼭 필요한 미디어 사역, 한 자리에서 배운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

그 레이 스미션 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는 릴리 2차 미디어 및 I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플러튼 본교(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서 미디어 사역 관련 인텐시브 강의를 진행한다.

미디어 사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신학생, 사역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카메라 작동법, IP 네트워크 콘퍼런스 운영, 페이스 북 라이브 등 미디어와 관련해 교회와

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무를 다루게 된다.

특히 인텐시브 교육 및 GMU에서 실시하는 미디어 및 IT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미디어 및 IT 사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릴리 2차 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강의를 담당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이번 강의는 직접 실습 위주로 강의내용이 구성되었고, 현재 인턴 요청을 한 교회와 선교단체는 은혜한인교회, 손미니스트리를 포함 하여 13곳이 있다”며 “미디어 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강의의 등록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문의는 제임스 구 교수 714-525-0088 (Ext 203), 김남진 간사 213-500-5524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한국 헤민병원 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 쿠폰구입
\$28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종합건강센터 **이성수** 소장

자세한 내용은 **213.668.4781** 로 문의해 주세요.

“고혈압 당뇨, 카디오 원격 진료로 맥에서 편하게 관리하세요”

“이제는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맥에서 편하게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를 통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의 건강 수치를 주치의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원격 진료 회사 카디오(대표 찰스 김, Kardio)가 획기적인 서비스로 시니어들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카디오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장소에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치의와 카디오 케어 팀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시니어들에게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

원격 진료 시스템은 카디오가 제공하는 기기로 건강 상태를 측정하면 혈압과 맥박, 당 수치와 체중 등 자신의 건강 정보

가 4G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 담당의사와 카디오에게 전달된다. 담당 의사와 카디오는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케 했다.

카디오에서 제공하는 혈압기와 혈당기는 시니어들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게 만들어졌으며, FDA 인증 제품으로 미국대학병원에서도 사용될 만큼 우수한 품질을 보장한다.

카디오 원격진료 서비스를 받기는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이들을 진료하는 내과, 심장과, 호흡과 및 노인과 전문의들이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 진료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만성 폐질환, 체중관리, 통증 관리, 퇴원 후 관리, 비만 등 각종 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담당 의사뿐아니라 모바



원격 진료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디오' 임직원들. 앞줄 맨 오른쪽이 찰스 김 대표, 가운데 티나 정 CFO, 맨 왼쪽 스티븐 정 COO

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녀들도 부모들의 건강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찰스 김 대표는 “카디오 원격 진료 시스템은 최고의 원격 플랫폼과 맞춤형 모니터링으로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효과적인 진료 서비스

로 더 많은 한인시니어들과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카디오 원격 진료 서비스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어 또는 PPO 보험 가입자는 전 미주 지역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기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

다. 신청은 자신의 담당 의에게 카디오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카디오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4) 494-1380 이메일 info@Kardio.health 웹사이트 www.Kardio.health 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세요”

선 미니스트리(대표 김정환 선교사, SON Ministries)와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계 기관 및 단체가 전쟁으로 집과 고향을 떠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선 미니스트리는 지난 11일 남가주 기독교인사 기자 간담회를 열고 O.C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 O.C 목사회(회장 박용일 목사),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O.C 여성목사회(회장 박정희 목사)등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20만 달러를 목표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금 액수와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 단체와 언론사에 자세한 지원 내역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선 미니스트리는 우크라이나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교계 기관 단체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기자 간담회 주요 참석자 기념촬영 ©기독일보

현지에서 인접국 국경에서 사역하는 서진택 선교사(하르키우), 정광섭 선교사(우즈고라도, 슬로바키아 국경), 한호진 선교사(키시나우 난민캠프), 김현승 선교사(몰도바 국경)와 협력해 현지

난민 구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환 선교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갑자기 일어난 전쟁으로 강도 당한 이웃과 같이 매일 비참한 현실 가운데 고통 받고 있다”며 “미주 한인교회들

과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모금 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선교사는 이어 “지원금은

투명성을 가지고 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역에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은 목사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생명을 위협을 받는 고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렌지 카운티 지역 교회와, 기관 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따뜻한 사랑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전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 미니스트리는 1차(4월 30일 마감)와 2차(5월 31일 마감) 모금을 통해 20만 달러를 4명의 선교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선 미니스트리는 더 나아가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비롯해 미주 전 지역의 한인 교계와도 연계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후원문의 714-350-6957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을 몰아내지 않았다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Righteous Outlaw

복음통일선교도서의 편지자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세종대 교수), 조성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종희(고려대 명예교수), 송경희(서울대 명예교수), 권준희(서울대 명예교수), 신영민(서울대 명예교수), 유은주(서울대 명예교수), 김진호(서울대 명예교수)

* 편의 책은 1000원, 주권책은 1500원입니다.
\$20/원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늘을 몰아내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원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 동역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축!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장립·권사임직 감사예배!

평강교회 설립 제41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 22년 동안 충성하신 이상우 장로님의 원로장로 추대와 최기용, 임 단, 김은성 세 분의 장로장립과 최종숙, 김현주, 민인자 세 분의 권사임직 및 임다나 권사의 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임직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 합니다.

일시 : 2022년 3월 27일(주일) 오후 1시
장소 : 평강교회 본당 606 El Centro Street, South Pasadena, CA 91030

 담임목사 이상기	 2대 담임목사 송금관	 원로장로추대 이상우 장로	 장로장립 최기용 장로	 장로장립 임 단 장로	 장로장립 김은성 장로
 권사임직 최종숙 권사	 권사임직 김현주 권사	 권사임직 민인자 권사	 권사취임 임다나 권사		

평강교회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46

“은혜한인교회(GMI) EM 주일예배를 드리고”

얼마 전에 청년 집회에 강사로 오셨던 이집트 선교사가 강의 중에 GMI EM 예배를 말씀한 기억이 난다. 우리 선교단체의 청년들은 찬양을 부를 때 열광을 하고 기도를 드려도 크게 외치는 기도만 한다고 했다. GMI EM 예배를 가 보라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린다 했다. 필자는 그 말을 수긍하지 못해 고개를 가우뚱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부부를 위해 기도해 줄 교우들은 나오라 했다. 수십 명이 강단에 올랐고 모든 청중은 일어섰다. 그들은 강단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다. 모두가 연합으로 자신들 앞에서 자기의 육신의 죄를 고백한 그를 위해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 한동안 합심 기도를 마치고 Shine 목사는 다른 동역 목회자를 불러 그 부부를 위한 기도를 해 달라고 했다. 그 다음 목회자가 기도하다가 그도 평평 울면서 자신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음란물과 음란 동영상 상습적으로 보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또다시 모두가 연합으로 한동안 기도했다. 온 예배당이 회개의 눈물과 애痛的 소리로 가득했다.

Shine 목사가 기도 후에 강단 아래 스탠드 마이크 하나를 설치해 달라 미디어 부에 청했다. 곧바로 설치된 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권했다.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지금 자기의 육신을 따르던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사람은 앞에 나와 자신의 음란이나 부도덕한 죄에 대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란다 했다. 또 한동안의 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석에서 한 명씩 나와 음란의 죄를 고백하였다. 수도 없이 계속 나왔고 예배는 거의 3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도로 계속되었고 마지막 Shine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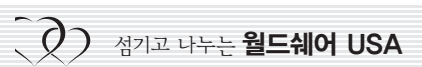
이 예배는 마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회개의 기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필자는 예배 후에 눈물로 같이 기도했던 딸 내외들에게 진정 어린 회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주일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세대에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회개를 보여준 참된 예배였다고 했다.

지난주일 그 교회 EM 스텝이었던 딸 아이가 출산 후 산 후조리를 위해 친정에 와있었다. 딸 내외와 가정에서 생방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필자는 은혜한인교회의 EM 예배는 처음 경험했다. EM 담당 목사인 pastor Shine은 몇 번 인사를 나눈 정도다. 예배는 찬양팀의 인도로 긴 시간 모두가 함께 깊이 찬양하였다. 30분 이상 기도하면서 부르는 찬양에 예배자들이 하나 된 마음을 느꼈다.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강단에 Shine 목사님이 올랐다. 메시지를 전하는 줄 알았는데 설교자를 소개하였다. 이번 주일은 함께 부역자로 사역하는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다며 모두가 큰 박수로 그를 맞이 하였다.

강단에 오른 그는 잘 맞는 하얀 와이셔츠와 청바지에 구두복장이었다. 밝은 표정에 멋진 모습이었다. 메시지는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육신을 위하는 인생의 비참함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죄성에 대하여. 영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여기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거룩함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들을 적용하며 명확하고 간절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좋은 메시지로 설교가 마쳐지는가 싶었을 때, 그는 잠시 자기의 과거 삶을 나누겠다고 했다. 결혼한 지 5년, 결혼 전에도 성적 쾌락을 따라 살았는데 결혼 후까지도 성적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내에게 범했던 성적 죄악을 고백했다. 그는 죄를 고백하는 내내 눈물 범벅으로 흐느꼈다. 몇 번이나 말을 잊지 못하고 있을 때 Shine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그를 꼭 안아 주었다. 그의 아내를 강단에 부르라고 두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④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한 해변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갈릴리 공생애(共生涯)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마 9:1~2; 막 2:1~5).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도로가 발달된 가버나움은 번창하는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도 성행했습니다. 아울러 가버나움 근교의 농업도 발달해 가버나움은 종합적인 경제 도시였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훔의 마을’입니다. 여기서 나훔은 구약 예언서의 저자 나훔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나훔은 가버나움을 세운 사람이거나 가버나움 출신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환영 받지 못하자 가버나움을 제 2의 고향으로 삼고 가버나움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공생애 사역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습니다(마 4:13).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아울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불러 따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신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마태의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지만 그들의 고향은 벳새다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가버나움에서 부름을 받은 다섯 제자들과 그 가족들이 가버나움에 기반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자신의 동네(Lord's own town 마9:1)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버나움에 가장 오래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다양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가

버나움의 회당과 개인의 집에서 가르치셨습니다(막 1:21; 2:1).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회당은 로마의 백부장이 지은 회당이었습니다(눅7:5).

아울러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백부장의 종(마 8:5-13)을 고치셨고, 네 명의 친구가 데려와 지붕을 뜯고 내린 중풍병자(막 2:1-12)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마 8:14-15; 막 1:29-31). 나아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요 4:46-54)을 치유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 오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돌씩 짚을 지어 전도를 보내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였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장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전초기이며,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라신, 벳새다와 더불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버나움을 저주하셨습니다(마 11:20-24; 눅 10:13-15).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가버나움은 철저히 망합니다. 데이빗 패드필드 에 의하면 가버나움은 4세기 중엽에 대형 지진을 겪으며 폐허가 되었습니다. 7세기

에 다시 큰 지진을 경험하며 한번 더 망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은 재건되지 않고 한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고 십자군 전쟁이전에 도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던 가버나움은 1838년 미국의 탐험가 에드워드 로빈슨이 폐허로 변한 가버나움을 발굴하였고, 1894년 작은 형제회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헬라어로 ‘베드로’가 새겨진 풋말과 어선의 그림을 발견하였습니다. 1920년 이후에 기독교의 성지로 발굴되고 기념 예배당과 같은 건물이 건축되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농업, 어업 그리고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아울러 가버나움은 무역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뱃길과 육지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해변 고속도로(Via Maris)’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대로 ‘해변 고속도로(Via Maris)’는 이집트에서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무역 도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활발한 경제 활동과 상당한 교통량이 있어서 지역의 산업과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로마의 세관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가 그곳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 9:9).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가버나움은 기록에 의하면 로마군의 파견대가 주둔했었고 로마군 장병들의 숙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나름대로 탁월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로마로 직접 연결된 도로가 있었고, 유대 땅에서는 특이하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내는 상당한 규모의 다문화 국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2022 효사랑 제9회 미주 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HYO” (Filial Piety) Writing & Art Contest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가정의 통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가정애를 배우고
성경적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참가 방법_How to Entry
주제 (Theme)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자랑한다면?”
(ex. 예배하는 가정,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가정,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
How faith and God is shown through your family's daily life.
(ex. Your family worshipping, Your family reading, writing, and meditating the bible, Your family showing love for our neighbors)
대상 (Participants) : Kindergarten ~ 12th grade
참가비 (Entry Fee) : \$20 (per work)
(check payable to Hyosarangus or Venmo : Hyosarangus Mission)
접수기간 (Acceptance Period) : April 18, 2022 ~ May 18, 2022
제출방법 (Submission Information) : 우편, 방문 혹은 E-mail(글짓기에 한함)
Regular Mail, Physical Submission or E-mail (written work only)
- Written Wrok : 3 pages (letter size, 12pt)
- Artwork : 14" x 17" (Crayon, Watercolor, Acrylic Paint, etc.)
* Please attach the application form when submitting your work.
The application form can be downloaded from www.hyosarangusa.org
제출 및 문의 (Contact) : 효사랑 선교회(SBC)
(714-670-8004 or 562-833-5520)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E-mail. hyosarangus@gmail.com
www.hyosarangusa.org
후원단체
O.C. 교협, OC 장로협의회, openbank, HAVEN, 가주교목신문, Michelle Steel, Steven Choi, Sharon Quirk-Silva, 오렌지카운티 연인회

[인터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

“이상적 온라인 신학 수업, 포지셔닝 아닌 포메이션 혁신으로”

모든 대화에서 한 번 이상은 코로나에 대한 안부나 염려가 오갈 만큼,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충격을 미치고 있는 것이 어느새 2년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 채로 시작한 2022년, 팬데믹으로 인해 미주 신학계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대세다. 대다수의 신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여 학위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에 부정적이었던 신학교들조차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미드웨스턴 신학대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 ©기독교일보

강의를 지양하고 토론, 질의, 발표 등이 가능한 실시간 대면 요소를 배치했다. 또한,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하이브리드의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하이브리드 형태의 수업은 학사 행정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뒷받침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학 교육은 단지 정보의 전달, 문제 해결, 또는 자기주도학습의 차원에서 머물러만 된다. 신학 교육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나의 삶과 타자(교수와 다른 학생들)의 삶이 연결되고 나의 삶과 예수의 삶이 연결되는 삶과 삶이 부딪혀서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신학 교육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이다. 이 컨텍스트의 만남이 없는 진정한 신학 교육이 일어날 수 없다.”

“온라인 교육의 편리성과 효율성만을 갖고 신학 교육을 진행하면 안 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효용성을 논할 때가 아니라 당위성을 전제로 신학 교육에 가장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되, 삶이 만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면 요소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신학적 논의를 하는데 과연 이상적인 도구인가? 온라인 교육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기 위해 남침례교단 산하 6개 신학교 가운데 유일한 한인 학장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미국 미주리주에 소재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에는 학부 과정인 스펠전 칼리지를 포함하여 현재 5,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가운데 한국부 학생은 7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어로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신학교 가운데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다.

박성진 학장은 한양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공부하고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6년간 재직하다 신학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 구약 전공으로 신학석사학위(Th.M.)를 받았으며, 히브리 유니온 칼리지-유대학 종교연구소에서 비교문화언어학과 고대 근동학으로 석사(M.Phil.)와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이하는 일문 일답.

-미드웨스턴은 온라인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미드웨스턴은 글로벌 시대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를 위해 임시방편이 아닌 미래적, 대안적 시스템으로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다. 2011년부터 100% 온라인으로 석사과정을 운용해왔고, 2019년부터는 박사과정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디자인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F-1 학생들을 위한 대면 수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교육이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선 장소와 환경의 제약이 거의 없이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미드웨스턴 한국부의 학생들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들이 예전의 방식으로 수업할 경우, 미국을 오가며 한두 주 사역을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나 팬데믹 기간에는 국가 간 이동이 쉽지 않아, 대면 수업의 기회를 가지기조차 어려울 때가 많았다.”

“미드웨스턴은 팬데믹 기간에도 온라인 수업을 통해 모든 강의의 예정대로 진행함으로써, 학

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뿐 아니라 논문지도 등을 100% 소화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드웨스턴의 석박사 과정의 졸업생은 오히려 평년보다 팬데믹 기간에 더 많았다. 물론 잘 갖추어진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석박사 학위과정의 취지에 온라인 수업 시스템은 적합하다.”

“둘째, 시간과 경비에서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인터넷이 되는 장소라면 최소한의 장비만으로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장 강의는 일정이 맞지 않으면 수강할 수 없지만, 온라인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셋째, 학습의 수준 및 효율성도 높다. 사실 온라인 포맷을 통한 학습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지만, 정서적인 이질감 때문에 다소 홀대당한 경향이 없지 않다. 특히 대면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온라인의 한계는 명확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업마다 실시간 화상 토론 등을 배치하여 토론과 질의 응답

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게시판에 제공되는 영상이나 수업 자료들은 언제든지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의 효율성과 함께 대면의 장점을 융합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은 물론 학생들의 만족 및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온라인 교육의 단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정서적인 교감을 온라인 교육을 통해 느끼며 나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대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대화를 진행할 때 느낄 수 있는 교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 부분이 온라인 교육의 최대 단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필자가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100% 온라인으로 석박사 과정이 가능하지만, 일부 과목은 거리두기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대면 수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고 100% 온라인 수업에도 제공된 강의 영상 위주의 단방향

-온라인 교육을 현재 실행하고 있는 신학교에게 조언을 준다면?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범지구적이며 전대미문의 강력한 상대를, 신학 교육이라는 경기장에서 상대하고 있다. 허겁지겁 달려온 전반전을 뒤로하고, 후반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술을 고민하는 하프타임으로 이 시간을 호기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수와 학생이 각자의 역할 뿐 아니라 원 팀으로 상호 유기적인 플레이를 준비한다면, 후반전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여량이 한인 신학교에게 충분히 있다고 확신한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화이팅하기를 소망한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상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리스팅 전문.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케를리. Cell 714.345.4989.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29년 전통의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는 워싱턴 신학대학교 및 Baylor University, George W. Truett Seminary와 학사 협정을 맺고 각종 학위(AD, BA, MRE, M.Div)와 사역 인증서(Certification of Ministry)를 수여 합니다. 2022 여름학기 개설과목. 본문이 이끄는 설교(입문). 성경 헬라이어 연구 1. 성경과 현대 윤리적 이슈들.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GBTIS의 Re-Vital Online Program은 이렇게 다릅니다. 01. 목회자 및 교사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실천적, 신학적인 Resource를 제공합니다. 02. 실시간과 녹화 수업 (Asynchronous Learning)을 병행한 탁월한 강의와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학업 성취도를 극대화 합니다. 03. 담당 교수는 모든 학생들의 사역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언제나 1:1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 되어 있습니다. 신약학 홍순기 교수 (Ph.D., Dallas Theological Seminary). 설교학, 윤리학 서경민 교수 (Ph.D.,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목사 꿈꿨다’ 던 윤석열 당선인, 기독교 관련 주요 정책은

차별금지법: 반대자 처벌은 반민주적, 국민 합의 필요
사학법 재개정: 학생 모집권, 재정·인사권 침해 등 우려
통일정책: 한미일 안보 동맹 기초, 다자 간 협력과 대화

윤석열 당선인의 기독교 정책은 국민의힘에서 선거운동 기간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 제시한 답변서에서 파악 가능하다.

먼저 기독교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도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고,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선 1월 한국교회연합과의 대화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를 차별해선 안 된다며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에 있다”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 위험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할 정도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1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 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 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에 관해선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평화 실현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이고, 이를 위해 한미일 안보 동맹에 기초한 다자 간 협력과 대화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북한 식량난 지원을 비롯해, 종교-스포츠문화-학술 교류를 적극 시행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평화 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



윤석열 당선인이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행이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 하는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되려 남북평화에 역행하게 된다는 점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선 10일 새벽 당선인 취임식에서 국회 상황실에서 인사했다. “뜨겁고 아주 열정적인 레이스를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다.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 힘,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

당의 승리라기보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선거 운동 기간 많이 배웠다”며 “우리의 경쟁도 모두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경쟁은 끝났고,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한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제일 처음 꿈은 목사였다”며 “(서울) 보문동에 살던 시절, 한참 나

면 종로2가에 YMCA 어린이 센터라는 유치원이 있었다”며 “기독교적인 유치원을 다녔고, 국민학교(현 초등학교)를 영락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광국민학교에 다녔다”고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윤 당선인은 당시 “유치원과 국민학교 시절에는 기독교의 영향에 푹 빠져서 지냈다”며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은 여러 연극과 행사 등을 준비했고, 여름에는 성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는 장래희망이 목사였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연천군에 대규모 이슬람 캠핑장 논란... “주민 우려 급증”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51 내지 753번지 일대 약 10만 평(28만 3천여㎡)의 부지 중 7,000여 평에 대규모 이슬람 캠핑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주권행동, 국민주권행동연천지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행동 등 57개 시민단체는 16일 11시 연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캠핑장 허가 즉각 취소와 개발 허가 경위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에 의하면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는 지난 2007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 현 시세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위 부지를 28억 원에 매입하여, 위 부지의 초입에 해당하는 7,000평을 절대

녹지의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후, 작년 3월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했다.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작년 9월 연천군 주민들이 우연히 목격한 ‘이슬람 캠핑장 조감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연천군 주민들은 “캠핑장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부지에 거대한 숙박시설을 추가로 짓게 될 것이고,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도 당연히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그 지역이 각종 거주시설 등이 우집하면서 대규모 이슬람 거주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다처제와 여성 인권유린 등 일반 윤리에도 위배되는 이슬람교의 배타적인 교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



이슬람 캠핑장이 조성될 부지로 알려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의 해당 현장. ©기독교일보

려하고 있다. 연천군청 홈페이지 「군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이슬람 캠핑장 건립 반대 관련 게시 글이 7백여 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연천군 상인연합회 등 3,000여 명

의 주민들이 이슬람 캠핑장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군과 미군의 군사시설이 밀집한 곳에 대규모 이슬람 집합 장소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에 적대적인 극단적인 이슬

람 단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언제든지 우리 군사시설에 접근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마음만 먹으면 치명적인 테러를 감행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연천군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수와 인허가 과정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으므로 토지거래 허가부터 원천적으로 무효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외면하고 토지거래 허가 형질변경과 개발허가를 해준 연천군청과 군 당국은 그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함은 물론, 이 사건 문제 토지에 대한 거래와 인허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앞서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세서날-웰라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물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멧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예)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가정을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1 &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로 세울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삼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과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술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B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지역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초점을 둔 정진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도회)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엔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2: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탈동성애 미 신학 교수 “동성애에 끌리는 욕망은 죄”



크리스토퍼 위안(Christopher Yuan) 미국 무디바이블인스티튜트 교수 ©WaterBrook & Multnomah

탈 동성애 출신 기독교 대학교수가 동성애에 끌리는 욕망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죄라고 경고했다. 미국 ‘무디바이블인스티튜트’의 교수이자 작가인 크리스토퍼 위안(Christopher Yuan)은 최근 팟캐스트인 ‘Challenging Conversations’에 출연해 “모든 동성 간의 욕망은 성적 욕구이며 낭만적인 욕망은 죄”라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 행위만이 죄’라는 견해에 대해 “이는 예수께서 산상수훈(마5:27-29)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안은 몇 년 전만 해도 자신은 ‘행동 자체가 죄’라고 믿었지만, 성경을 더 읽고 연구한 후에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욕망하지 않는 한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릇된 욕구가 욕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죄”라며 이 욕구는 “성적일 뿐만 아니라 낭만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죄를 행위로만 제한하는데, 마음속의 욕망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성관계가 없는 동성 간 언약 관계는 괜찮다는 견해에 대해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며 “평생을 약속한 영적 우정은 실제 성관계가 없는 결혼일 뿐이며 여전히 죄”라고 했다.

또 아가서 8장 4절을 인용, “때가 될 때까지 사랑을 깨우지 말라”, “성경의 성(sexuality)은 흑과 백”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구절이 적절한 시기가 될

때까지 육체적, 성적 감정을 깨우지 말라는 경고이며,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생각과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은 “성경을 읽고, 오직 성경만 의지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길로 이끈다”면서 “만일 우리가 동성 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동성 간 욕망)은 성적인 것도, 낭만적인 것도 죄”라고 했다.

또 “많은 이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로맨틱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다. 삼위일체(Trinity)도 그러하다. 하지만 이 개념은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동성 간의 끌림과 성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기독교인들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짓는 일이 점점 줄어들길 바란다. 비록 죄를 짓더라도, 성령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게 핵심”이라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한다. 어느 한 쪽의 스펙트럼 - 진리를 희생시켜 은혜가 충만하거나, 은혜를 희생시켜 진리만 충만하게 되는 것 - 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들은 응답 중 ‘당신의 죄를 위하여 구세주가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女 경기 참여한 트랜스젠더 비판 美 하원 의원, 트위정 계정 정지



©Pixabay

을 정지시켰다.

하츨러의 캠페인 매니저 마이클 하프터(Michael Hafner)는 관련 스크린샷을 게재한 후, “어리석음의 극치”라는 트윗을 남겼다.

또 하츨러는 페이스북에 “트위터는 그들의 플랫폼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계정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난 내 트윗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진실을 말할 것이다! 여성 스포츠는 여성을 위한 것이지, 여성을 가장한 남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글을 남겼다.

하츨러는 은퇴를 앞둔 로이 플러트(Roy Blunt) 상원의원의 후임으로 출마한다. 그녀는 선거 캠페인에서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에 대한 논쟁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유세에 나선 그녀는 토마스의 성전환 전후 모습을 함께 보여 주며 “남자 수영 순위 462위인 윌리엄 토마스(William Thomas)와 여자 수영 순위 1위인 리아 토마스(Lia Thomas)를 보라. 단 한 가지 문제는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말하기 두려워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 난 비키 하츨러다. 여자 트랙을 달렸고, 코치를 했으며, 자유주의자들이 여성 스포츠를 파괴하는 동안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여성 스포츠는 남성이 아닌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미 국회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의 여성 경기 참여를 비판한 내용을 게재했다가 계정이 정지됐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미주리주 상원의원에 출마한 비키 하츨러(Vicky Hartzler) 하원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펜실베이니아대학 교 리아 토마스(Lia Thomas)에 대해 언급했다.

토마스는 트랜스젠더로서 여자 팀 경기에 참여하기 전, 남자팀에서 3년 동안 경기를 펼친 바 있다. 토마스도 인해 미국수영협회(USA Swimming)는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 하츨러는 개인 트위터에 “여성 스포츠는 여성을 위한 것이지 여성을 가장한 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트위터는 중요 행위에 대한 운영상 규칙을 위반했다며 그의 계정

美연합감리회, LGBT 이슈 다룰 총회 세 번째 연기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미 연합감리회 총회 모습. ©미 연합감리회

미국연합감리회(UMC)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총회를 3번째 연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총회 주최측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과 제약으로 총회를 오는 2024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총회가 당초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2021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로 조정됐다가, 2022년으로 다시 연기됐었다. 김 심슨 위원장은 “회의 연기에 대한 결정은 매우 어려웠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철저히, 그리고 성실히 대안을 논의했다. 궁극적으로 2024년이 대표단과 참석자의 건강 및 안전에 있어서 더 큰 기회와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CP는 “이러한 움직임이 UMC에, 특히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성소수자(LGBT) 이슈와 관련된 신학적 차이에 따른 교단 분리를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일부 UMC 모임은 “전진하기 위해 2024년

까지 기다릴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보수 감리교인들은 새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를 오는 5월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GMC는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전 세계 수천 명의 감리교회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3년이 넘도록 동역하며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예규메니칼 및 복음주의로 흠뻑 젖어 있는, 새롭게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감리교 교단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일부 지역 교회는 공정하고 정당한 탈퇴 절차에 가까이 협력하는 연회를 찾겠지만, 불행히도 다른 지역교회는 여러 장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과도기적 리더십 위원회’ (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은 GMC를 시작할 때라고 결정했다. 일찍 탈퇴할 수 있는 교회들은 건축과 성장을 시작하고, 나중에 다른 교회들이 합류할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OC예배 주일 7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1954 Redhill St., Northridge, CA 91321, (818)853-9887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메(Maturing), 갱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사우스베이 지역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주/고예배 오전 11:00, 주일/유초등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 지역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양대학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 벨렐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월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월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안성복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청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장년예배 오후 7:00(수), 주일학교 오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요일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 찬양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담하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는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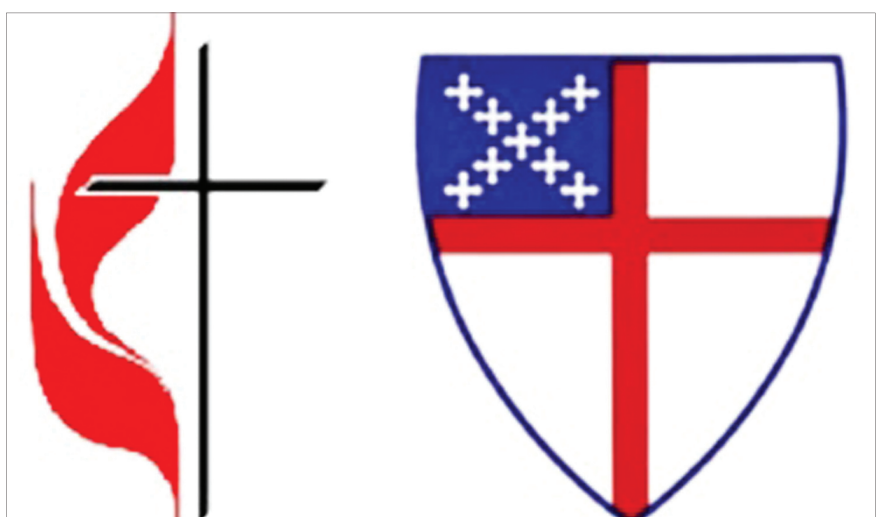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미 성공회-감리교 '완전상통' 협정 보류... UMC 총회 연기 탓



미국 연합감리교회(왼쪽)와 미국 성공회(오른쪽) 로고.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기독교 일치 및 종교간 관계 사무국(OCCUIR) 웹사이트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의 총회 연기로 인해 성공회와 연합감리교회 간에 '완전한 상통(full consum)' 협정이 또 다시 보류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지난주 UMC 총회 주최 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총회를 2024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UMC는 협정 결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표를 2년 뒤에 재개한다. 이 협정은 성공회와 연합감리교회가 서로를 사역의 동반자로 공식 인정하고, 서로의 세례와 성찬식을 인정하며, 함께 예배하고, 성직자를 교환하는 등 완전한 교감을 갖는 관계를 골자로 한다. 결의안은 2019년 주교회의가 승인하여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투표에 부질 예정이었으나, 대유행으로 인해 올해까지 세 번 연기됐다. 성공회뉴스서비스(ENS)는 미국 성공회 총회 에큐메니컬 및 종교 간 관계에 관한 회의에서 회원들이 UMC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해결할 때까지 협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UMC 장정은 현재 동성애가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동성결혼에 대한 축복과 동성애 성직자의 서품을 금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MC는 보수파의 상당수가 교단을 탈퇴해 새 교단의 출범을 공식화한 가운데, 진보 감리교인들은 교단의 공식 입장을 뒤집을 기회가 온 셈이다. 종교민주주의연구소 유엠액션(UM Action)을 비롯한 교단 내 보수파들은 세 번째 총회 연기 결정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하며 잠재적으로 파괴적”이라고 비난했다. 유엠액션은 “위원회의 다수와 그들이 이 파괴적인 길로 몰아넣은 사람들은 혼란과 더 많은 교회 분열, 승자가 없는 소송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UMC 탈퇴를 선언한 일부 감리교 보수파는 지난 3일 총회의 분리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5월에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세계감리교회 측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일부 지역 교회는 공정하고 정당한 조항들을 협상할 용의가 있는 연례 회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불행히도 다른 교회들은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기적 지도자 위원회는 (교단을) 일찍 떠날 사람들이 정착하고, 건축과 성장을 시작하며, 추후에 다른 이들이 합류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세계감리교회를 출범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러시아의 승리, 우크라 종교 자유의 종식 의미”

美 가족연구회 부국장 “러시아정교회 아닌 신자에 위험 초래” 경고

미국의 한 기독교 보수 단체가 러시아군의 승리는 우크라이나의 종교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종교자유센터 아리엘 델 투르코(Arielle Del Turco) 부국장은 ‘러시아의 승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종교 자유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게재했다.

투르코는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이유 없는 침략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로 세계를 고무시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군대 중 하나의 공격을 약 2주간 견뎌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들의 결의를 증명했다”면서 “그들은 러시아나 러시아의 대리인의 통제 아래 살기를 원치 않으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선한 이유가 있다. 러시아의 승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의미하는 많은 비극과 고난 중에는 종교 자유의 퇴행이 있

다”고 했다.

그는 침공 이후에 “러시아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우크라이나를 통제하는 것은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신자들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의 영향력이 종교적 억압을 불러온 예”라고 말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분리주의 반정부 간의 전쟁 당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분리주의파가 이 지역을 점령했고, 이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독립했다.

그는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발표를 인용, “러시아 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여전히 박해의 대상이 된다”라며 “신자들은 허가 없이 예배를 위해 모일 경우 처벌을 받으며, 교회는 이유 없이 급습을 당한다. 당국은 루한스크에서 찬송가,



지난달 27일 영국 런던 화이트홀과 노팅힐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밖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Ehimetalor Akhere Unuabona/ Unsplash.com

요한복음 번역 등 기독교 인쇄물을 금지했다”고 했다. 또 그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그곳에 종교 행위에 차가운 냉기를 불러왔다”며 “러시아 점령 당국은 우크라이나 정교회 소유의 재산을 몰수하고 철거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모호한 반극단주의 법 아래 반복

적으로 표적이 되고, 크림 타타르 무슬림들은 법적 차별을 받고 있고, 일부는 투옥되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그는 “구소련 국가 중 가장 좋은 종교의 자유 환경을 가진 나라”라며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미국 정부가 특별우려국

가 목록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투르코는 끝으로 “종교 자유를 수용한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러시아의 부패한 종교 남용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모든 신앙을 가진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김유진 기자

난민 구호 최전선에 선 폴란드 침례교회들, 수만명 도와줘



2022년 3월 구호 물품을 실은 버스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향하고 있다. ©Texas Baptist Men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인 테티아나(Tetyana) 씨는 장녀와 함께 수도 키이우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러시아 침공군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포격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48시간

동안 나와 딸은 바닥에 엎드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가장 필요한 물건을 빨리 싸서 키이우에서 도망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26일 오후 1시경, 수도를 빠져 나온 그들이 마주한 것은 50km

가량을 줄지은 자동차 행렬이었다. 결국 이들은 자동차를 버리고 버스를 탄 뒤, 27일 새벽 2시에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데 성공했다.

이때, 테티아나 씨와 딸을 반긴 사람들은 폴란드 침례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이들은 두 사람을 바르샤바에 위치한 침례교 신학교로 안내했다.

폴란드침례교연합회 회장인 마레크 글로데크와 부회장인 마테우즈 위차리는 부회장은 우크라이나인들을 폴란드 신학교에 입학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해왔다.

위차리 부회장은 “하나님은 지난 10년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을 우리 교회에 두셨고, 그들은 이번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난 온 우크라이나인들은 우리 교회에 도착해 그들의 언어, 문화 및 관습을 아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발생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두려움이 안도감으로 바뀌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침례교세계연맹(Baptist World Alliance)의 구호 활동을 위한 후방 지원은 미국서도 이어지고 있다.

댈러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인 ‘텍사스침례교사람들(Texas Baptist Men, TBM)’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교회 4곳의 쉼터에 구호 기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미키 레나몬 TBM 전무이사

겸 CEO는 “세계의 시선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있다”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전 세계의 침례교인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다”고 말했다.

침례교세계연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례교인들은 쉼터와 구호소를 통해 약 4만 5천 명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돌보았다. 이 지역은 폴란드 침례교인들의 구호 활동을 중심으로 헝가리 침례교인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유진 기자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르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항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원 목사(편저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벽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순종을 위한 고난과 죽음의 성과(2)

히브리서 5:5-10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고 6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중략)...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 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험에 들거나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죄인의 신분이 되셔서 십자가 형틀의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어가셨던가를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회개해서 지옥을 벗어나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27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하셨고, 마태복음 28:18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남기신 이유는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일을 당하기 위해 오신 것을 스스로 밝히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죽임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 의로워졌다는 보증이 되어 주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의 성과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5-11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택하신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아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가면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스런 주인공들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성령은 애타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생명부활로 반드시 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지옥 갈 많은 영혼을 생명 길로 이끌어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해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도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같이 순종을 위한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복음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생명 부활로 영원히 동참하게 하시는 소망이 보장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 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험에 들거나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죄인의 신분이 되셔서 십자가 형틀의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어가셨던가를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회개해서 지옥을 벗어나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

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27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하셨고, 마태복음 28:18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남기신 이유는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일을 당하기 위해 오신 것을 스스로 밝히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죽임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 의로워졌다는 보증이 되어 주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의 성과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5-11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택하신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아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가면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스런 주인공들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성령은 애타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생명부활로 반드시 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지옥 갈 많은 영혼을 생명 길로 이끌어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해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도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같이 순종을 위한 고난과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복음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생명 부활로 영원히 동참하게 하시는 소망이 보장될 것입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22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QR코드: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원리, 목회학(M.Div), 신약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8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i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재포화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허가자급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 (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lobal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헌정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미국연방안기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112
admin.kor@itsla.edu www.itsla.edu

■ 강준민 칼럼

감사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부흥 집회 초청을 받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롯기를 강해할 때가 많습니다. 롯기의 이야기는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나 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상실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또한 나오미의 며느리 롯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비극은 희극으로 바뀝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 됩니다. 롯기는 짧지만 많은 교훈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롯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감사의 지혜입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엢 5:20).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왜 하나님이 감사를 이토록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감사 속에 우리 삶을 풍성케 하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압 여인 롯을 통해 감사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과 풍성한 열매를 배웠습니다.

첫째, 감사의 뿌리는 겸손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롯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 밭에서 이삭을 계속 줌게 하고, 소년들이 길러 온 물을 마시도록 작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롯은 그 작은 은혜 앞에 감격합니다. 감탄합니다. 롯은 앞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녀의 감사 표현 속에 겸손한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롯 2:10).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롯 2:13).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겸손의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으로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데서 한 발걸음 더 나아가 말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롯은 표현을 잘 합니다. 자신이 보아스에게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현합니다. 감사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표현할 때 감사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셋째,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만드는 그릇입니다. 롯이 보

아스가 베풀어 준 작은 은혜에 감사했을 때 보아스는 그녀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최고의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먹는 문제를 넘어서 그녀를 교제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롯이 보아스가 베풀어 준 작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장차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담은 그릇과 같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넷째, 감사는 좋은 만남을 가꾸는 지혜입니다. 좋은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은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이 좋은 인생을 창조하고, 나쁜 만남이 나쁜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좋은 만남이 찾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을 가꾸는 것은 지혜입니다. 롯은 좋은 만남을 가꿀 줄 알았습

니다. 그 비밀은 감사에 있었습니다. 롯은 보아스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좋은 만남을 가꾸었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벧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마 1:5).

마지막으로 감사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과부였습니다. 과거에 모압의 우상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아스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녀의 미래가 새롭게 열립니다. 슬픔에 찢던 그녀의 인생에 행복이 깃들입니다. G. K. 체스터턴은 “감사는 모든 행복의 시금석이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전제입니다. 또한 감사는 사랑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며칠 전 저희 부부는 결혼 4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결혼 생활의 비밀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한 것과 서로에게 감사하며 산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태도이며,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나누도록 합시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함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드온의 책임자인 나는 소극파의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 수가 없었다. 그들을 향한 말은 언제나 독설에 가까웠고 심지어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리고는 ‘이 땅의 모든 재산은 전도하는 자들에게!’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구호를 높이 들고 동료들을 도적질의 길로 줄기차게 내몰았다

한편 소극파들이 강경파의 극단적인 행동들을 묵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강경파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강경파가 흠쳐 오는 양식을 먹고 의복을 입으면서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참으로 다��스럽고 감사한 일은 강경파에 강력하게 항거하지도 못하고 행동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여정쟁한 소극파를 내가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소극파 덕분에 강경파인 우리가 도적질을 하든 싸움을 하든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든든하게 여겼다. 하나님은 묵 놓아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

기에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도적질을 하려 가면서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누군가를 응징 하려 나갈 때도 아말렉 같은 놈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무엇을 도적질하든 모두 성공했고, 누구를 응징하든 골리앗같이 맥없이 쓰러뜨려 승리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과연 도적질과 이웃의 것을 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인지, 나는 지금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당시에는 그것이 정의롭다 여겨 한 일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인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 뜻과 위배되는 우리의 행위를 용납하신 것인지, 하나님께 직접 대답을 듣고 싶다. 언젠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꼭 이 질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행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으며 기쁨과 슬픔이 공전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우리도 차츰 성장하고 있었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국내이사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무소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samsungmoving@gmail.com

사랑과 희생에서 가치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성경책 한 권을 50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면, 북한 땅에서는 성경을 지니는 것이 죽음과 같습니다. 무시무시한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든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기에 똑같은 성경이라도 가치는 50불이 아니라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것의 가치는 곁의 가격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희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나의 죄 사함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의 가치는 ‘예수님 가치’로 바뀌어 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넘쳐나게 되므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많은 러시아 병사들은 자신이 침략전쟁에 참전하는지 알지 못했고, 단순히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푸틴은 전투 중인 장병들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말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당한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을 위한 희생은 언제나 고통을 가져다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선도 끝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선자나 낙선자보다 어떤 상황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집중해야 참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초점입니다. 허접한 돌보기도 초점을 잘 맞추면 불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물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왜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잘 맞추면 누구든지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울이란 청년을 위대한 복음전도자 바

울로 변하게 했던 스테반집사의 순교가 그렇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테반집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 했고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신 예수님을 발뺌 일어나게 했고,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주관하시는 역사에서의 가치는 양이나 크기에서 나오지 않고 사랑과 희생에서 나옵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회도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면서 10분의 임직자와 3분의 명예권사를 세웠습니다. 직분의 가치는 희생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존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존재


■요한복음 12:20-26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에 존재”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본문은 “영혼의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여호야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고국의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심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죽을 것이라는 통고를 받고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어린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탄원하던 마음을 표현했던 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낙향하여 안식일 날 성전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시라고도 말합니다. 모두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말씀의 머리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 중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한 마

음을 표현한 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은 끊임없이 갈급해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이다”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마음 한 곳에서 심하게 갈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사막지역입니다. 한 낮에 땀방울이 너무 강렬할 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는 한 마리의 사슴의 모습이 얼마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은 늘 갈망하는 존재라고 소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모두는 더 행복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하기를 갈망합니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갈망합니다. 더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자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버림받은 심정으로 예루살렘 북쪽 멀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늘을 쳐다 보며 옛날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할 때를 생각하니 그때가 마음에 사무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정을 표현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낙심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소개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고 말합니다. 여기 시인은 전에는 예배드리러 성전에 가서 찬양대도 하고 사람들을 안내하기도 하며 사역했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갈급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그 낙심이 커지니까 나는 이대로 죽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영혼아

평안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오늘 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욕적인 갈망으로 마음을 살아가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호소하고 있는 갈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혼에 갈망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갈망이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작자는 고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낙심과 불안입니다. 모든 문제를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큰 약점은 낙심하는 것이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며 삶에 문제로 고민하시는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저런 일들을 시도해 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고심하며 밤잠을 못 이루시는 모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우리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 보려 하지만 그것은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 #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ge	\$300,000		\$500,000		\$1,000,000		Age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준영 Rate 월 보험료/시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형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NEWSTAR Realty & Inv. 뉴스스타부동산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싸이프러스, 라팔마, 일바인 OC/LA 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New Star Carol 뉴스타 캐롤리**

2020 뉴스타 <금탑> 에이전트!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최고의 투자는 아파트/유닛입니다!! 지역 좋고 가격 좋고 렌트 잘 나오는 유닛을 소개합니다

NEW! **싸이프러스** **모빌홈 \$12만** 방3화2 건평 약 1100SF 최고학군 최고 위치 스페이스 렌트 약 \$1,900

특점 부에나팍 \$95만 HOT! 방3, 화2 건평 약 1500 SF 단층 편리하고 통 썬스물 도보거리 투자자 환영, 렌트 \$3,000 받을 수 있는 곳

케롤리의 커머셜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 많은 문의 바랍니다

2020년 다수 수상

뉴스타 사이닝스타 <에이전트>

케롤리 DRE 01966905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arole Lee Realtor® Cell 714.345.4989

현 오렌지북부한인회 회장 뉴스타장학재단 이사겸 심사위원 뉴스타부동산 뉴에이전트 특강강사 싸이프러스 25년 거주 UCI 졸업 ● 확실한 1.5세 Million Dollar Club 라디오서울 1650 AM 부동산정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부동산 칼럼 0.562.824.4989

★ 주택 / 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 리스팅 전문,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에이전트 캐롤리 ★

세계적 지휘자가 심혈 기울여 파고든 바흐의 생애 「바흐: 천상의 음악」

“바흐 앞에서는,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



존 엘리엇 가디너
노승림 역
오픈하우스 | 1,028쪽

역사상
가장 불가해한
천재 작곡가
바흐를
재조명하는
기념비적인 책

세계적인 지휘자
존 엘리엇 가디너가
생애를 바쳐 집필한
바흐에 관한
가장 정밀하고
사실적인 해석

“바흐에게 덧씌워진 하나님 같은 이미지는 그가 겪은 예술적 고뇌를 가리며, 그를 더 이상 탁월한 음악 장인으로 볼 수 없게 만든다. ... 그동안의 바흐 연구는 단지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하다.”

〈바흐: 천상의 음악〉은 존 엘리엇 가디너(John Eliot Gardiner)라는 영국의 세계적인 지휘자가 ‘성실하고 거룩한 음악의 아버지’라는 바흐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오랜 연구와 자신의 연주 경험을 토대로 바흐라는 인물 자체에 깊이 파고드는 작품이다.

저자는 ‘작품 속 인간과의 조우(rencontrer l’homme en sacrecreation)’를 위해 책을 썼다고 말한다. 기존 연구가 바흐의 음악에 집중한 나머지, ‘인간 바흐’를 여전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는 바흐가 다른 음악가들과 달리 후세에 ‘오로지 음악으로만’ 말하고 있기 때문. 그 음악조차 상당 부분 소실됐다. 하지만 바흐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가슴 벅차게 느꼈던 영감(靈感)의 원천과 비결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록이 없다. “부지런한 게 답이지”라는 교과서적 답변 뿐.

그리고 “칸타타, 모테트, 오라토리오 및 미사곡과 수난곡을 통해, 바흐가 자신의 폭넓은 세계관뿐 아니라 자신의 사고방식과 선호하는 기질(하필 그 가사

를 선택한 이유로 들 수 있는)을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자신의 연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가면 갈수록 인간 바흐가 그의 불가해한 음악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실감했다. 그의 주요 걸작인 합창곡들을 연주할 때조차도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빠져 있는 듯 허전했다.”

저자는 바흐의 주요 작품인 ‘칸타타’가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탐구하고자, 그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교회와 청중들의 경건함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바흐에 대해 평생 느끼던 매력으로부터 유래된 직관에서 시작된 발상으로, ‘바흐 칸타타 순례’를 시도했다.

이는 기독교 절기에 맞춰 1년 동안 칸타타 전곡을 연주하는 것이었다. 저자는 바흐를 닮은 부지런함으로 새천년을 맞이한 2000년, 예수 탄생 2000년과 바흐 서거 250주년을 기념해 바흐의 연주 생애를 따라 장소를 옮겨다니며 총 93회 콘서트와 198편의 작품을 완주하는 ‘음악 순례’라는 장대한 서사시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무표정해 보이는 칸토르의 가발 밑에서 어떻게 이처럼 활력과 판타지 넘치는 음악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 책

은 그 결과물 중 하나다.

“그의 음악이 우리에게 그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보라고 손짓하는 내내, 능숙한 예술가의 시선은 마치 이것이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스케일과 시야를 온전히 실현하는 방식임을 암시하는 것만 같다. 따라서 꼭 연주만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 음악들을 가까이서 공부하고 듣는다면 어쨌든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바흐는 작곡가 겸 연주자로서 그의 음악의 모든 줄기를 탐구했기 때문에, 그 음악을 해석하는 사람들 또한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듣는 이들은 깨달아야 한다.”

저자는 바흐가 직접 그린 악보 등을 토대로 그의 작업 방식과 순서를 분석해보기도 하고, 요한 수난곡 전체를 마치 연주자 모두를 이끌며 지휘하듯 들려주기도 한다. 저자는 바흐가 음악을 시각화했다고 표현했는데, 저자 자신도 하나의 칸타타 작품을 그렇게 구현했다.

특히 제5장 ‘신앙의 기술’에서는 바흐와 그의 작품을 신앙적으로 분석한다. “그처럼 세속적이면서도 호소력을 담은 명확성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세계관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에게 종교는 도그마를 넘어 정신적일 뿐 아니라 실천적 응용이었고, 이성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바흐는 자신의 종교를 직업적 실천에 적용한 구조적이면서도 체계화된 방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저자는 ‘신앙의 기술’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바흐를 인간으로서나 작곡가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고심해야 할 대상이다.

“신의 영광을 위한 그의 예술적 헌신은 머리글자 ‘SDG(Soli Deo Gloria, 오직 여호와께 영광)’를 가지고 교회 칸타타를 노래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좌우명은 그가 남긴 협주곡, 파르티타, 그리고 기악 모음곡에도 똑같은 정도로 적용됐다.”

심지어 바흐의 음악은 오늘날 무신론자들의 마음도 흔들어 놓는다. “의식적으로 나는 확실히 무신론자다. 하지만 이를 밖으로 떠들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바흐 앞에서는 내가 무신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믿음의 방식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의 음악은 기도를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다(헝가리 작곡가 죄르지 쿠르탁).”

이처럼 그의 음악은 거룩하지만,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끝으로 저자는 바흐에 대해 “천상의 성의 음악을 작곡하고, 신의 음성을 인간의 형식으로 들려주는 사람”이라며 “그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그의 음악의 완전성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신성한 것을 인간적으로 만들고, 인간적인 것을 신성하게 만들면서”라고 평가하면서 이 아름다운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신간] 인생 혁명

브니엘출판사가 김원태 목사(기쁨의교회)의 신간 <인생 혁명>을 출간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올바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는 법정적 칭의와 함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의 뿌리인 나를 빼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법정적 칭의라고 말한다. 이 법정적 칭의는 자칫 잘못하면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상한 믿음을 낳게 한다. 이런 사람은 삶과 믿음을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모순을 낳는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며, 정말 올바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는 법정적 칭의와 함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계의 회복이란 탕자로 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처럼 다시 아버지와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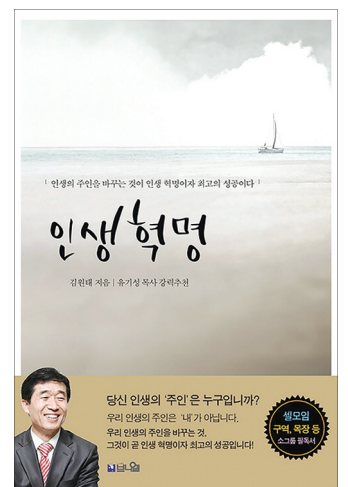
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탕자는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탕자에게 배부른 은혜이자,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순간 법적으로 아들의 자격이 회복됨과 함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시작됐다. 탕자가 아들이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 되었

다면 아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아버지의 집에 살 때 이뤄지는 것이다. 구원은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된다”라고 했다.

한편, 김원태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두란노서원에서 <생명의 삶> 편집장을 역임했다. 이후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 도미하여 Liberty에서 신학석사와 Regent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기쁨의교회를 개척하며 사역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새 시리즈, <더 배트맨> (2)

<더 배트맨>, 가까이 편만한 죄악과 멀리 보이는 소망

평단 전반적 호평에도 대중들 반응은 적어 배트맨 시리즈 본연의 매력과 강점 극대화 악인 응징하고 의인 보호하는 의지 명료화 영화 현실감 구약 의인들 현실인식 모티프



<더 배트맨>은 죄악이 관영한 도시 고담의 현실을 통해 죄성의 실제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죄의 어두움: 배트맨 시리즈 가운데 가장 암울한 <더 배트맨>

지난 3월 1일 개봉된 <더 배트맨>은 현재 평단의 평가와 관객들의 반응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론가들은 새로운 배트맨 3부작의 문을 여는 이 영화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서사의 현실성, 분위기의 어두움, 인간의 부정적 심성에 대한 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평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이런 평단의 호평에 비해, 대중의 반응은 미적지근한 편이다. 개봉 당일 19만 명 넘는 관객을 동원한 것을 제외하면, 영화 개봉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흥행성적은 부진한 편이다.

<더 배트맨>이 평단의 전반적 호평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흥행세를 보이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대중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의 어두운 분위기이다. 이 영화는 현재까지 개봉된 배트맨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작품이다.

세 시간이라는 긴 러닝타임 내 해가 비치는 밝은 풍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중간중간 빗줄기와 안개가 풍경을 채우고 있다. 대사 중 유쾌한 조크는 찾아볼 수 없고 복수심에 짓눌려 뒤틀린 영웅 브루스 웨인의 굳은 표정, 악의에 사로잡힌 연쇄살인마 리들러의 괴박한 목소리, 비열한 마피아 두목 코블팻과 팔코네의 욕망에 찌든 표정 등 보기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는 인물상만 등장한다.

<더 배트맨>의 부진한 흥행세를 이끄는 두 번째 이유는 서사의 산만함을 들 수 있다. 일단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의 수가 둘을 넘어 대여섯에 이르기 때문에, 어떤 인물 관계에 집중해야 할지 순간순간 종을 잡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신적 혼란에 빠진 주인공 브루스 웨인과 확신에 찬 빌런 리들러의 갈등이 서사의 핵심 줄기를 이루지만, 이 둘의 갈등에 깊게 연루된 셀리나 카일, 팔코네, 코블팻 등이 등장해서 관객의 관심을 이리저리 분산시켜 놓는다. 세 시간이라는 러닝타임만 가지고는 이들의 복잡한 관계를 밀도감 있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다수의 평론가들이 분석한 대로 이 작품은 배트맨 시리즈가 가진 본연의 매력과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무엇보다 죄악의 어두움에 넋더리를 내면서도 매일 밤 다시 범죄 현장에 찾아가 악인들을 응징하고 의인들을 보호하는 배트맨의 투쟁심과 의지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자기희생적인 캐릭터이다. 매일 밤 마주치는 죄악의 참상이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에게 닥친 불행(눈앞에서 강도에게 살해당함)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데도, 고담시의 선량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자처하는 인물이다.

다수의 대중문화 학술연구자들이 분석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무너져내리는 가운데서도 고담이 악인들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려 분투하는 배트맨의 모습은 악인들 중에 거하는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아브라함,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 롯(벧후 2:8)의 기사를 모티프로 삼고 있다.

◆죄의 현실: 구약에서 차용한 죄악된 현실에 대한 인식

이처럼 구약의 모티프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배트맨 시리즈의 서사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보다는 어두운 현실이 우선적으로 부각된다. 애초 구약의 기록 전반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먼 미래, 언젠가 될지 모르시기에 메시아가 나타나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리라는 소망이 있지만, 당장의 현실은 이스라엘 내부 우상숭배자들의 불신앙과 악행, 그리고 포악한 이방 강대국의 압제만 눈에 들어올 뿐이다.

소망의 불씨는 너무 멀리 있어서 거의 보이지 않고, 바로 옆에는 어두움이 가득하다. <더 배트맨>의 전체적인 배경 표현은 바로 이런 구약적 분위기를 영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어두움 속에는 선량한 이들의 삶과 심령마저 잠식할 만한 짙은 악의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영화 속에서는 이런 악의 때문에 의인의 대표적인 배트맨마저 정신적 혼돈과 증오에 찬 복수심에 휘둘린다.

이처럼 악의 세력이 고담이라는 공간 전체에 워낙 총명한 나머지, 리들러나 코블팻, 조커 같은 빌런 한둘을 막아낸다고 도시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빌런들에 비견되거나 그보다 더한 또 다른 빌런들이 계속해서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고 확산되는 악의 세력을 힘겹게 막아내는 고통스러운 영웅의 형상이 배트맨이라는 IP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는 인간의 죄성이 단지 몇몇 인간의 도덕성이나 희생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다

는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한다.

구약은 멀리 있는 메시아의 소망을 전해주는 하지만 당장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는 오로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때에만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신약 시대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한 개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에게 은연히 하나님의 공의보다 범죄가 삶을 지배하는 환경이 펼쳐진다.

<더 배트맨>의 암울한 도시 고담, 그리고 그 속에서 악의와 증오에 침식된 브루스 웨인의 마음은 이렇듯 복음의 빛이 이르지 못한 인간의 불안한 생활방식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결국 영화 <더 배트맨>은 아직 온전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채 삶의 구원을 바라는 구약 의인들의 현실인식과 바람을 모티프 삼아 주요인물과 배경을 설정했고, 그래서 그 어떤 슈퍼히어로 서사보다 현실감이 넘친다.

유독 배트맨 시리즈로부터 현실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영화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다크 나이트>, <조커>, 그리고 <더 배트맨>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들의 공동체에 뿌리내린 죄악은 독특한 형이상학적 실제성을 갖는다. 죄는 인간들의 삶으로부터 나온 상대적인 원리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고선(summum bonum)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보조적으로 존재하는 영적 실상이다.

이 실상은 하나님께는 결코 현실화되지 않는 무(無)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에게는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실제로서의 위력을 갖고 있다.

<더 배트맨>은 브루스 웨인을 비롯해 고담 전체를 짓누르는 암울한 분위기와 빌런들의 기괴한 악의를 통해 죄악이 우리 현실에 편만한 있는 실상이라는 사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이 영화가 관객들로부터 다소간이나마 외면 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자기 내면의 허물과 자신 주변에서 위협을 가하는 악을 직시하기를 꺼린다. 이는 죄악이 자기 삶과 영혼을 위협하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어렵듯이 알고 있고, 그런 파괴적인 힘이 자기 주위에 상존하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배트맨>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일정한 의미를 갖는 작품이다. 우리가 평소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죄성의 음습하고 불길한 느낌을 영상으로나마 간접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죄악을 멀리하고 진정한 선과 의로움을 바라는 마음을 일깨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구약성경으로부터 서사 전반을 차용한 덕분에 나오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OPEN 23주년 기념 세일



리모델링 전문

ADU

Second Unit 건축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Water Damage

보수공사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Solar팀, Roofing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ucco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Solar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20% 이상 절약**이 됩니다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LA (213)500-8000 3400 W Olympic Blvd., #204, L.A, CA 90019 (구, 로랜드 빌딩)

OC (714)294-4336 8251 Roland St., #E, Buena Park, CA 90621

https://abundancedesignandconstruction.com

NOW OFFERING

IB PYP(K~5TH) • MYP(6TH~10TH)
DP(11TH~12TH)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C



Now Enrolling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
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Est.1999

e-nca.org